

하나됨과 나눔

“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기쁨 ”

〈 시편 119편 35절 〉

- 극한 호우로 인한 피해가 많습니다. 주변에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있는지 살피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 전반기 방 생활에 잘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여름 공동체생활이 7월 30일(목) ~ 8월 2일(주일)까지 진행됩니다. 함께 기도하며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베다니하늘주방 (감사)

강단을 꽃으로 :

신협(헌금계좌) 사랑방교회(정재훈) 131-021-578132

농협(선교공동체계좌) 대한예수교장로사랑방교회 225036-55-003053

농협(학교후원회계좌) 사랑방공동체학교(정태일) 351-1165-8216-43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44 - 29 호

2026년 7월 19일

사랑방공동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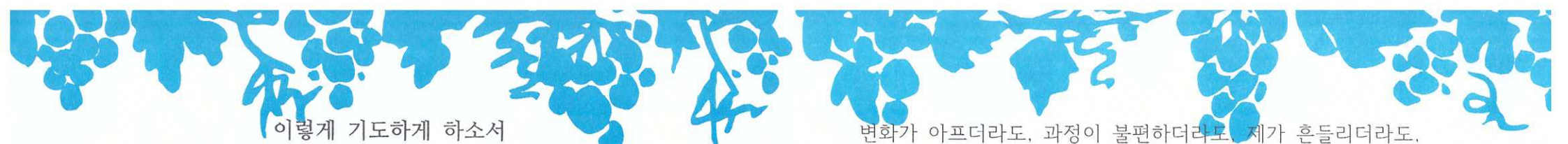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사
랑
방
은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이렇게 기도하게 하소서

하나님,

저는 오늘도 제 모습을 포장한 채 주님 앞에 서려고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인 척, 믿음 좋은 사람인 척,
성숙한 사람인 척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 속을 아시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제 안에는 여전히 교만이 있고, 인정받고 싶은 욕망이 있고,
비교하며 상처받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저는 남보다 옳아 보이고 싶어하고, 남보다 나아 보이고 싶어하며,
남보다 뒤쳐질까 두려워합니다.
그것이 신앙보다 더 중요해질 때도 많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사실은 제 안전과 성공과 체면을
더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주님이 아니라 결과와 숫자와 사람의
평가에 더 의지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더 이상 저를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제 죄를 합리화 하지 않겠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섭니다.
연약하고, 이기적이고, 부족한 사람으로 섭니다.
주님 저를 조금 고쳐주지 마십시오. 겉모습만 손보지 마십시오.
종교적인 사람으로 만들지 마시고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십
시오.
제 생각도 욕망도 제 우선순위도 주님의 손으로 다시 빚어 주십시오.

선교와 섬김



변화가 아프더라도, 과정이 불편하더라도, 제가 흔들리더라도,
끝까지 주님께 붙어있게 해주십시오.

주님, 저는 스스로 고칠 수 없습니다.
결심으로 거룩해질 수 없고 노력으로 새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만이 저를 바꿀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제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제 의를 내려놓습니다. 제 공로를 내려놓습니다.
저는 오직 은혜로 사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 은혜 아니면 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주님, 제 삶이 주님께 방해가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이 주님을 가리지 않게 하시고
제 행동이 주님을 부끄럽지 않게 하시며
제 선택이 주님 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공보다 거룩함을, 편안함보다 순종을,
인정받음보다 진실함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는 말씀보다
'끝까지 나를 붙잡았구나'라는 주님의 음성이 듣고 싶습니다.
오늘도 저를 새롭게 하소서.
오늘도 저를 붙드소서.
오늘도 저를 주님께로 이끄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 [출처] C.S. 루이스의 사상에서 영감을 받은 기도 -



지금 가장 젊은 청춘

사람은 점점 변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를 먹어서, 세상을 겪어서, 사람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신앙의 성장을 통해서 등 사람은 제 자리에 있지 않고 변화를 가져옵니다. 요즘 드라마나 영화, 소설과 같은 콘텐츠에는 과거로 돌아가는 회귀물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걸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최선을 다해서 놀았기 때문에 나는 그대로 지낼 거고, 힘든 과거를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내가 아는 것도 다르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성장했고, 가치관도 바뀌고, 내가 모르던 나의 대한 성향 알게 된 것을 생각해 보니 나는 나지만 과거의 나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거를 돌아가면 어린 시절과 많이 다르겠다는 생각을 하며 더 많은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같은 장소, 같은 사람들과 매년 같은 일을 하면서 인생이 쳇바퀴처럼 돌아간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현재의 나는 안정적인 게 좋고, 혼자 쉬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다 요즘 오랜만에 새로운 취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바로 보드게임을 배우러 가는 것입니다. 원래 보드게임을 좋아하고, 좋은 보드게임을 수집하기도 했는데 게임을 배울 수 없어서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보드게임 회사에서 주말에 명작 보드게임 원데이 클래스를 만들었습니다. 평소에 관심 있던 보드게임들을 배울 수 있게 되서 원하는 게임과 날짜가 맞으면 토요일에 지체 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실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너무 재밌습니다. 이번에 배우는 것에 대한 설렘도 있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좀 낯설지만 그래도 용기를 내게 됩니다. 오랜만에 새로운 활력을 찾아서 즐겁게 지내는 현재가 좋습니다. 지금이 가장 젊을 때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가능성, 인생에서 봤을 때 지금이 가장 빛날 때임을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수 많은 변화를 거쳐 찾아온 가장 젊은 현재의 나는 가장 빛나는 청춘입니다.

그루터기사랑방 이어람 집사

<수요 정오기도회>

인 도 : 장영미 전도사

찬 송 : 440장, 401장, 314장

성 경 : 마태복음 22장 34~40절

말 씀 : 가장 큰 계명

중보기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해 < 미국과 이란 전쟁의 종전 >

1) 미-이란 전쟁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하루 빨리 종전되어 더 이상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2) 어렵게 합의된 종전 양해각서의 효력이 무산되지 않고 효력을 발휘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해 < 교회와 공동체의 일꾼들을 위해 >

* 현재 교회와 신앙공동체들은 교역자와 새로운 멤버 유입이 없어 인력난으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와 공동체에 새로운 인원들이 채워지고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 위해 < 지체들을 위한 기도 >

1) 교육관 증축이 안전하게 진행되며, 재정적으로 어렵지 않을 수 있도록.

2) 여름 공동체생활 준비와 많은 식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3) 멧쟁이학교 학기말 정리와 학부모 면담이 순탄하게 마무리 되기를 기도합니다.

<생활공동체 소식>

꾸러기와 어린이학교의 종강으로 공동체는 간만에 조용히 지내고 있습니다. 큰 비 소식에 배수로를 점검하고 교육관 증축 부분도 담당하시는 분들이 비 피해가 없도록 잘 막아두었습니다. 비가 잠시 멈춘 사이에 밭 작물들을 거두고 주변을 정리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비가 계속 많이 온다고 하니 더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겠습니다.

<장영미 전도사>

한주간의 말씀

“ 여러분이 육신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
< 로마서 8장 13절 말씀 >

<수요기도회>

인도 : 정재훈 목사

찬송 : 84 380 / 93

기도 :

성경 : 역대하 27장

제목 :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걷다

1. 내용: 요담이 웃시야를 본받아 유다를 잘 통치하였다 (What)

<문단구분>

1~2절 요담 왕의 소개

3~7절 요담의 통치

8~9절 요담의 죽음

2. 의미: 요담이 하나님 앞에서 강하여졌다. (Why)

1) 요담은 아버지를 따라 바른 길로 걸었다.

2) 외세의 침략을 극복하고 승리하였다.

3) 죽음 후에 좋은 평가를 받았다.

3. 적용: 잘한 것을 본받고 잘못된 것을 멀리하자. (How)

1) 앞선 잘못을 반복하지 말자.

2) 우리가 힘쓸 것들을 생각하자.

3) 우리의 생애가 어떻게 평가될 것인가 생각하자.

은혜의 발걸음, 수목원 둘레길을 걸으며

주일 낮,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예배를 드리고 맛있는 점심 식사를 마치고 나면, 특별하고도 복된 또 하나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오후 1시 30분 무렵, 다섯 명 남짓한 성도들이, 교육관 앞마당에 하나둘 모여듭니다. 올해부터 소박하게 시작한 주일 식후 산책 동아리, '건강한 걸음' 모임입니다.

우리가 향하는 곳은 교회 바로 곁에 선물처럼 자리한 수목원 둘레길입니다. 큰 부담 없이, 점심에 먹은 음식을 가볍게 소화시킨다는 마음으로 한 걸음씩 숲을 향해 발을 내딛습니다. 불과 30분 남짓한 짧은 산책길이지만, 우거진 나뭇가지 사이로 난 숲길에 들어서는 순간 매주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번잡한 일상을 벗어나 하나님 오직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새로운 세계로 쏙 들어온 것만 같은 기분입니다. 매주 찾아가는 똑같은 길이지만 숲은 결코 머무르는 법 없이, 계절의 변화에 따라 날마다 새로운 옷을 갈아입으며 창조주의 위대하심과 자연의 신비를 조용히 전해주는 것만 같습니다.

산책을 하는 중간중간 보물찾기를 하듯 붉고 탐스럽게 익은 산딸기를 하나씩 따 먹습니다. 자연이 거저 주는 달콤한 열매를 함께 나누며 아이처럼 웃고 즐기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눈길이 닿는 곳마다 초록빛이 가득한 숲길을 나란히 걸으며, 이런저런 삶의 대화들을 나누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 자녀들이 재롱이, 꾸러기, 어린이 시절에 이 숲길을 오가며 자연을 벗 삼아 마음껏 뛰놀며 어울렸던 정겨운 추억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울창한 나무들이 뿜어내는 싱그러운 피톤치드 덕분에 지치고 둔해졌던 머리와 몸이 시원하게 맑아지고, 정겨운 대화 속에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질 때쯤 우리의 산책은 끝이 납니다.

교회 주변에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산책 숲길이 있다는 것, 서로의 삶을 나누며 함께 발맞추어 걷는 귀한 지체들이 있다는 것, 아름다운 숲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주님 주신 은혜의 숲길을 함께 걸으며, 맑은 공기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운동화 필수^^)

따뜻한사랑방 우창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꾸러기학교

1학기 학부모 상담을 했습니다. 세상에 단 하나 뿐인 고유한 소 우주 나음이, 다운이, 하온이가 꾸러기학교에서 매일 만나고 서로 어울려 놀며 몸도 마음도 잘 자라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또 아이들을 키우시는 하나님과 부모님들 그리고 선생님들께 새삼 감사한 마음이 새록새록 차오르는 시간이었습니다.

1학기 마지막 날에는 '리나, 슈퍼히어로' 뮤지컬을 관람했습니다. 지난 5월에 에바 알머슨 뮤지컬 체험 전시를 먼저 보았기 때문에 꽃을 사랑하는 리나 언니와 개구쟁이 미노 오빠 그리고 미노 오빠가 버린 장난감들이 붙어서 생긴 붙어붙어 괴물을 무대에서 만날 기대로 가득 찼습니다. 뮤지컬은 기대보다 더 재미있었어요. 그리고 이미 지구를 사랑하고 아끼는 꾸러기들이지만 뮤지컬을 보고 난 후 더욱 쓰레기를 줄이고 물건은 아껴 쓰는 히어로 꾸러기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 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건강하고 즐겁게 매일 행복하게 잘 지내다가 만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 교사 : 전향옥 >

어린이학교

수요일부터 어린이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방학이 시작되기 이틀 전인 월요일 1교시, 이번 학기 마지막 어린이 예배는 학생회 총무인 최리야 어린이가 인도를, 5학년 학년장인 최하늘 어린이가 대표기도를 했고요. 사무엘상 15장 말씀으로 정다운 전도사님께서 <입술은 사울, 마음은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주셨습니다. 미술 테마 수업 마무리, 그리고 다른 학과 수업 마무리를 하고, 사물함에 있는 개인 물품들을 마저 챙기느라 집으로 돌아가는 어린이들의 가방이 묵직했습니다.

방학 하루 전, 화요일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2학기 개학하자마자 있을 반별여행을 위한 반별 모임, 1학기에 있었던 여행(개학여행, 캠프, 에버랜드 여행) 후기 중에서 가장 잘 쓴

배움과 가르침

친구들을 뽑아보는 시간, 각자 맡은 곳을 정리 정돈하는 청소 시간 등을 갖고 나서 다시 모두가 모인 오후 시간에는 각종 시상과 생일 축하가 있었습니다.

1학기 책돌이 상(학년별로 시행한 '도전, 책임기!' 최고상), 연산왕 상, 오전에 투표로 결정된 여행후기 상, 그리고 섬김이 상인 '우렁각시 상', 학부모회에서 달마다 달라지는 어린이 추천 책의 퀘스트를 잘 해결한 친구에게 주는 퀘스트 상의 수상자들에게 시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김주는 어린이와 이지음 어린이의 생일 축하를 미리 당겨서 하고 어린이학교 1학기 모든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가벼운 마음으로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각자가 받은 여름방학 숙제를 보며 또 신났습니다. 어린이 친구들 모두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즐거운 여름방학 되세요! < 교사 : 전선희 >

멋쟁이학교

종강여행을 다녀온 것이 벌써 옛적 일 같이 느껴지는, 방학 첫 주 간이었습니다. 많은 멋쟁이들은 휴식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집의 안락함을 마음껏 누렸습니다. 그 와중에도 이리저리 배움을 실천하는 멋쟁이들의 소식도 들려옵니다. 실컷 놀고, 마음껏 달리고, 잔뜩 먹고, 푹 누워있는 모습들이 벌써부터 상상이 갑니다.

학교에서는 기말 학부모 면담이 계속해서 이어졌습니다. 멋쟁이 한 명 한 명이 1학기를 어떤 시간들로 지냈는지 대화하고, 더 높은 차원으로 도약하기 위해 가정과 학교의 협력이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며 마음의 부담을 덜거나, 다음 숙제를 품고 헤어지기도 하지요. 이 반짝이는 원석들이 잘 다듬어져서 영롱한 빛을 뿌리는 인격체로 성숙될 것을 기대하고, 오늘도 면담 시간을 기다리게 됩니다. 설령 지금은 힘들고 주변을 아프게 하는 고슴도치가 눈에 보인다 하더라도, 인내와 사랑 끝에는 분명히 정말 멋진 사람이 될 것이라는 믿음과 경험을 통해서 말이지요. 다들 방학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 교사 : 이어진 >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시 편 143 : 8-10 인도자
9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요한복음 10 : 27-28 인도자
294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로마서 8 : 1-14 설교자
301 새작사랑방
“ 성령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 정재훈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다함께
인도자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안내 : 정연갑 이윤순 / 봉헌위원 : 임상희 / 꽃꽂이 : 김영화
돕는 이들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임은숙 이예은
진시우 김보경 진나우 이흥인 정아인

예 배

공동기도문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육신을 따라 살아가려는 생각을 버리고
성령의 생각으로 거룩한 삶에 이르게 하여 주십시오.
아멘

성령의 일을 생각하십시오

은혜의 선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습니다. 이 선언은 놀라운 은혜의 선언입니다.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우리를 해방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주 이것을 잊어버리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생각. 생각은 삶을 결정합니다. 육신에 속한 생각은 육신의 일을 따라갑니다. 성령의 생각은 위의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성령의 생각은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복음의 능력. 복음을 계속해서 기억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복음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각만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정재훈 목사 / 기도 : 박영선 집사